

전에 잠수함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일단 전쟁이 나면 바다에서는 어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일찌감치 승부가 나버린답니다. 현재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군 잠수함의 별명을 ‘바닷 속 경운기’라고 부를 만큼 성능은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물 속에서는 소리가 더 잘 들리죠.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바다 위, 아래에서 나는 모든 배 소리, 새 소리, 군함 소리들이 또렷하게 다 들립니다.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일수록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워하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인데, 그중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물’ 혹은 ‘어망’ 이랍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으려고 쳐 놓은 것인데 그래서 가끔 잠수함이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때는 안전한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물이 드리워져 있는 수면에서 50m 이내로 떠올라 오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한편으론 우습기도 합니다. 그 위엄을 자랑하는 잠수함이 그물을 무서워하는 것이나,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수면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잠수함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생각만 해도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도, 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매일 매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2번째와 3번째 시험의 순서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결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같은 세상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광야같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영적 시험들에 대해 의식하며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다면 이젠 그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즉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가지 시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받은 시험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시험의 내용과 순서가 사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먹음직하고... 돌덩이를 떡이 되게하라! 2.보암직도하고... 천하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3.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워...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인기와 자랑 명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모두 첫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하라’ 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이 떡이 되게하라? 먹거리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지금 이순간 가장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너 가정 먹고 사는게 중요하잖아! 그 일이나 신경써! 먹고사는 것도 빠듯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신경쓸 여유가 어디 있어???”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끝없이, 어쩔면 매일 매일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말그대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게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먹을게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혹은 배가 너무 불러서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죠. 잠언 30장 7절 이하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은 먹는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한테 절 해본적 있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당연히 없죠!’ 여기서 절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절을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더라도, 주인 삼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물질, 권세, 인기 등을 주인 삼는 거예요. 다시말해 그러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 출세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목적이 되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토록 선심쓰는척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대신에 출세와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죠. “야, 너도 야심이 있자나! 너도 성질 있자나? 왜 너만 참아. 너도 들이 받아!! 너는 절대 손해보지마. 자기를 부인하긴 뭘 부인해? 십자가를 지긴 뭇진다고 난리야?”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유혹의 소리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번째 시험은 ‘성 위에서 뛰어내려라(하나님을 시험).’ “뛰어내려봐! 그러면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너의 인기가 높아질거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게 뭐 있어? 니가

원하는 것 바라기도 바쁜데..."라고 우리들을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심지어는 저주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또한 이 시험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하나의 쇼/공연을 펼쳐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은 몰려들 것이고 예수님은 그날로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 무엇이라 표현하나면, ‘이 세상 임금’ (요 12:31) 또는 ‘세상의 신’ (고 후 4:4)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가 부리는 권세가 어느정도지만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영원토록요? 아니요! 끝이 곧 옵니다. 주님의 재림까지요... 해서 마귀는 그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애씁니다. 그 애씀의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시험과 세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질문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살 수 있지 않나?’ 질문 자체가 참~ 교묘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거든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도 마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 아봤거든요. 여기서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말씀을 꺾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아는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년수가 더해질 수록 겸손해져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지식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점점 눈이 띄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옳고 그름은 잘 아는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것처럼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튜오인데 그 뜻에는 ‘신실하다, 혹은 증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서 보듯이 믿음은 증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마귀에게도 본때를 좀 보여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나의 높음/내 뜻의 높음/내 성공의 높음’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오히려 나의 악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1:18)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있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출세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목매는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할 때도 신실하게 서있어야 하고, 내가 실패하고 낙오했어도 세상이 끝나는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있어야 하는게 믿음생활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예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에 두셔요.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철저히 보냄 받은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셔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고, 가장 높은 건물에서라도 가볍게 뛰어

내릴 수 있으시지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지배하실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외로운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증명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일에 일조하려 하십니까? 이 사명과 사역에 동참 하십니까?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가 보내셔서 이루라고 주신 일만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죽으러 보냄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겐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만큼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의 중심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도 인정하든 안하든 마귀의 시험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시험이 있음을 먼저 깨달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